

# 고려 목판인쇄술의 실증적 자료

민족적 염원 깃들인 '판만대장경판'과 '고려각판'

'고려대장경'이라면 초등학교생들까지도 대뜸 합천 해인사의 '판만대장경판'을 연상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둘은 엄밀한 의미에서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차이가 있다.

원래 불교의 모든 경전은 석가모니의 사후 그 제자들에 의해 결집(結集)된 것으로, 고대 인도말인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었다.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 그 대부분이 한문으로 번역되었는데, 번역사업 자체가 오랜 세월이 걸쳐 산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내용이나 체재가 들쭉날쭉해서 혼잡스러움을 피할 수 없었다. 이들 방대한 양의 한역(漢譯)경전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것이 곧 '대장경'이고, 이를 영구보존하고 또 필요에 따라 박아내기 위해 목판에 새긴 것이 '대장경판'이다. 중국에서는 10세기말인 송나라 태종때 처음으로 이를 판각했는데, 1125년 금나라의 침입으로 불타 없어졌다.

고려에서 대장경을 목판에 새긴 것은 두 번이다. 첫번째는 현종때인 1011~1029년에 걸쳐 이룩된 <초조(初雕) 대장경>이 그것인데, 이는 송나라의 <관판(官版) 대장경>을 바탕으로 보완한 것이다. 이것은 불행히도 뒷날 몽고군의 침입으로 불타버렸으나, 그것으로 박아낸 인본(印本)이 일부 남아 있어 원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현재 국보 제32호로 지정돼 있는 <해인사 대장경판>은 두번째로 새긴 것으로, '판만대장경판'이라고도 불린다. 이것은 고려 고종때 1236~1251년에 걸친 16년의 대역사



<해인사 대장경판(국보 32호)의 첫번째 경판인 '대반야바라밀다경판'(24x70cm)과 해인사의 고려대장경판전.



13세기 중엽, 16년이 걸려 완성된 고려대장경판은 8톤 트럭으로 무려 38대분에 이르는 방대한 물량으로, 어떤 경로로 해인사로 옮겨졌는지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로 완성된 것인데, 부처님의 법력으로 몽고군의 침략을 물리치려는 민족적 염원에서 조성했다는 것이 통설이다. 당시 조각된 경판의 수는 8만1137장이었으나, 후대에 추가된 현재 8만1258장이 해인사에 보존돼 있다.

이 대장경판은 본디 강화도 선원사(禪源寺)에 수장돼 있다가 조선 개국후인 1398년(태조 7) 해인사로 옮겨졌는데, 오늘날의 8톤 트럭으로 무려 38대분에 이르는 방대한 물량을 어떤 경로로 옮겨졌는지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최근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한 <해인사 대장경판>은 지난날 두번이나 도난사고를 겪었다. 일제때인 1915년 총독부의 조사에서 18장이 분실된 것이 밝혀져 복각(復刻)한 일이 있고, 그 뒤 54년만인 1969년 문화재관리국에서 조사했을 때에도 12장이 모자란 것이 밝혀져 떠들썩했다.

이 고려대장경판은 완성된 후 여러차례 책으로 인출(印出)되었는데, 가장 최근에는 동국대학교 역경원에서 1953~76년 사이에 영인 축소판 48권을 간행, 세계각국의 도서관에 보냈다.

대장경판 말고도 국보·보물급 목판이 해인사에 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고려시대에 사찰에서 고승의 시문집이나 불경을 새긴 54종의 <해인사 고려각판(高麗刻版)>이 그것인데, 그중 28종 2725판은 국보 제206호, 26종 110판은 보물 제734호로 지정돼 우리의 축적된 목판인쇄술을 실증하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W)

# 출판저널

통권 제208호 / 1997년 2월20일 발행

발행인 — 정진숙  
 편집인 — 전병석  
 인쇄인 — 이일수  
 편집위원 — 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준환  
 편집주간 — 이승우  
 편집장 — 김지연  
 기자 — 박남정 마정미  
 최성일 이현주  
 디자인 — 윤정자  
 사진 — 한준호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천창환

(재)한국출판금고  
 상임이사 — 최학수  
 총무부장 — 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 110-190 서울 종로구  
 시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 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차 구독료 3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책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일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금: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 출판에 관한 모든 것

똑같은 銀이라도 工房에서 만드는 장신구는 匠人의 손으로 만들기 때문에 품위와 정성이 느껴집니다.  
 똑같은 책이라도 오랜 경험의 장인정신으로 꼼꼼히 만드는 책은 좋은 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표지 디자인·단행본 편집·자비 출판물·전문 교열·교정  
 각종 문집 제작 대행

東芳기획 서울·종로구 종로 1가 27 복전 B/D 502호 전화: 732-3657(대)  
 FAX: 725-4384

## 다국어맥 편집서비스

학습교재, 다국어사전, 벽지관련 서적

한글판 Quark XPress에서 작업한 화일을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기타 다국어로 4도분출력이 가능한

Multi-Language One Step System 탄생—  
 한글·영어·중국어·일어·러시아어·스페인어 등을 한글판 Quark XPress 1개 화일내에서 작업하여 분판출력할 수 있는 MLOS System은 시간, 경제적인 측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외국어 인쇄매체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을 100퍼센트 만족시킬 것입니다.

멀티피아 T.267-5269 F.278-6441  
 중구인현2가 192-30 신성B/D 405

# 출판저널

정기구독 문의

732-1433

\* 1년분(22호분)  
 30,000원  
 \* 반년분(11호분)  
 16,000원